

잡된 글쓰기와 현실의 성화(聖火)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김승철

부산신학대학 부교수

김영민 교수의 《컨텍스트로, 패턴으로》(문학과지성사)와 김정근 교수의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한울)는 다같이 글쓰기의 문제가 인문학의 중심 주제로 자리잡아야 할 당위성을 천명하는 작업들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인문학의 위기'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작업의 아름다운 결실이다. 제목에서 강하게 암시하고 있듯이 양자는 모두 글쓰기의 '혁신'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인문학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인문학 현실의 비판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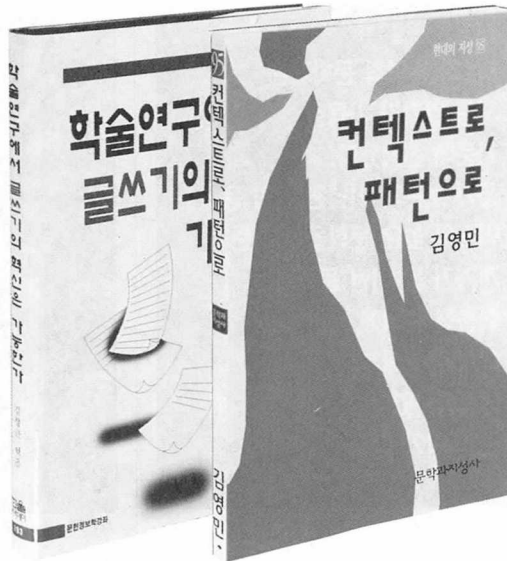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관점이 이동하는 '탈중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글쓰기의 유희를 계속하는 김영민의 경우나, '보편성 이론에 대한 집착'이나 '외부의 권위에 기댐' '일상성으로부터 유리된 지식 생산'의 허구성 등을 고발함으로써 '탈식민을 통한 주체성 회복'을 꾀하는 김정근의 시도는 결국 논의의 장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타겟과 목적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근이 그것을 "식민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육중한 멘트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김영민의 경우는 우리를 한없는 글쓰기의 가벼움과 미로에 거닐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안주하고 싶어하는 텍스트에 대한 환상을 부수어버린 다.

김영민의 글쓰기가 노정하고 있는 가벼움은 근본적으로 그의 다술(多述)의 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추구하는 '잡스러운 글쓰기'를 위한 방식과도 일치한다. 그의 글쓰기는 많은 것을 쓰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의 텍스트로 환원시키려는 회귀본능에 충실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하나의 것을 많은 것으로 흠뻑리는 글쓰기를 시도한다. 따라서 그의 다술은 많이 쓴다는 의미 외에 더욱 본질적으로는, 현실의 다성(多性)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이다.

그의 글은 '하나'에 대한 이상타파적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명사에 대한 동사의 우선성, 진리에 대한 일리(一理)의 입장은 '신성은 늘 바람 속에만 있어야 한다'는 기

두 책은 글쓰기의 문제가 인문학의 중심 주제로 자리잡아야 할 당위성을 천명하는 작업이다. 양자는 모두 글쓰기의 '혁신'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인문학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문학과지성사/A5신/218면/7000원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한울/A5신/326면/15,000원



도(祈禱)로 변한다. 따라서 일리의 입장은 '그 어디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생각을 내는(應無所住而生其心)' 무주(無住)의 사상과 그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숭배할 수 있는 인식을 구하려는 진리애착증이 환각을 자초한다"는 그의 말도 인식의 장소성에 대한 해석학적 자각의 극한, 또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많은 중심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자 하는 해체주의나 다원주의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색의 단초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일 것이다.

철학의 존재론적 추구

그의 글쓰기의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이 허공으로 유명하면서 흠날리지 않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로 향하는 것은 그의 책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려한 문장들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글들은, 역설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짙은 페이스스를 풍긴다. 나는 예전부터 여기에서, 때로는 수식이 너무 많다고까지 느껴지는 그의 글이 지닌 매력을 보고 싶었다. 비극의 종말은 모든 것을 시초와 종말로 완결시키는 기독교적 구속사관(救贖史觀)에서 기인한다는 수간 손탁이나 칼 야스퍼스의 지적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사실 완결적 진리 대신 경지적인 일리를 추구하려는 김영민에게 있어서 현실은 해피엔딩의 코메디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려는 비극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극은 언제나 미완결적이

고, 그래서 늘 현실적이다.

바로 여기에서 그의 글은 또 다른 차원의 종교성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겸손을 언급하는 곳에서 분명해진다. 그의 철학이 추구하는 또다른 덕목인 겸손은 단순히 도덕적인 겸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삶의 방식에 대한 이름이다. 즉 그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바로 지적에 있는 옆봉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느낌'을 견디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본 것을 못 본 체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됨을 장구한 세월동안 선도해왔던 신의 밀어(密語)'라고 할 것이다.

김영민은 이러한 겸손을 '패턴의 철학'으로 표현한다. 패턴은 인식에 있어서 '시간성의 무게와 그 상보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적이고 천박한 '쌓는' 종교의식-기도를 쌓고, 헌금을 쌓고, 업적을 쌓고, 구원을 덕지덕지 쌓아올리는 행위로서의 종교 이해-을 거부하는 김영민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인식의 구조란 역사를 통해서 중층적으로 쌓여온 패턴이라는 자각은 종교를 참다운 자리에 위치시켜려는 순결한 구도심으로까지 보인다.

패턴에 대한 집중은 무시간적·무공간적 진리인식을 당연하다는 듯 전제하는 독단적인 무신경성과 불경건성을 파기시킨다. 기독교 신학의 용어로 말한다면, 패턴은 계시

를 대신한다고 할 것이다. "패턴만큼 분명한 신의 족적(足跡)도 없을 것이다"는 그의 말은 그러므로 계시 없는 자의 신앙으로서, 그의 또 다른 책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신 없는 자의 구원에 대한 자각으로서 읽혀져야 할 것이다. 역사가 존재를 대신하고, 구조가 계시를 밀어냄으로써 자각되어 오는 일리란 다름 아니라 '패턴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해의 구조'이다. 결국 일리란 단일성과 보편성을 내용으로 하는 진리로서의 계시에 대한 극복을 의미한다.

철학의 이름으로 치르는 '성례전'

《컨텍스트로, 패턴으로》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는 첫인상과는 달리 지극히 '종교적'이다. 종교란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나 실체에 의해서 소외된 관계와 구조, 본질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난 현상, 중심에 대한 대극으로서 버려지는 주변에 대한 애정이고 긍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실에 '겨우 존재하는 것들'이나 '겨우 썩어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며, '로고스중심주의'에 의해서 착색된 거짓 보편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보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평자는 김영민의 글쓰기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현실의 성화(聖化)를 꿈꾸고 있다고 믿는다. 물이 성찬(聖餐)을 위한 포도주로 변하듯이, 마술사의 모자 속에 들어간 휴지가 새하얀 새가 되어 비상하듯이, 김영민의 '잡된 글쓰기'라는 마술피리는 그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치르는 성례전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일원화하지 않고, 많은 것을 많은 것 그대로 인정하는 다원적인 경지를 추구하는 김영민의 글쓰기 작업이 하나의 결실을 맺은 것을 기뻐하면서, 평자는 평소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김영민의 글쓰기 작업을 야부(治父)의 다음과 같은 글을 목표로 두면서 읽어내고 싶었다. 현실의 맑은 성화가 우려나오는 글쓰기는 진리나 계시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대 그림자 뜰을 빗질하지만, /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 / 달이 물밀을 뚫고 있으나, / 수면이 흔적 하나 남지 않는다.

(竹影掃塔塵不動 月穿潭底水無痕) ❖